

품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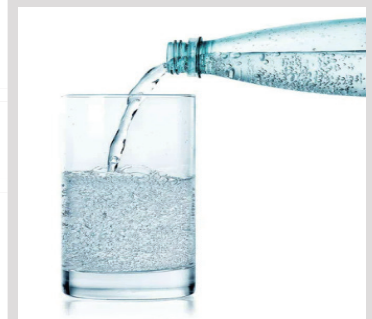
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
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

HS code

2202.10

상대국
수입관세율
(%)

MFN('24)	VK-AK FTA	RCEP		
		'24	'25	'26
35	0	24.5	21	17.5

선정
사유

- ▶ 해당 품목에 대한 대비 수출증감률은 22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, 24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529.6%로 대폭 상승함

한국의 연도별 대비 베트남 수출동향(HS code 2202.10)

(단위 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8	1,778	112.6
2019	1,038	-41.6
2020	1,095	5.5
2021	431	-60.7
2022	717	66.5
2023.3	306	50.7
2024.3	1,925	529.6

- ▶ 베트남은 (1) 더운 기후, (2) 가구별 사용하고 있는 물은 대부분 음용이 불가능한 석회수임, 이에 따라 베트남 내 물 음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과 동시에 한류의 관심까지 겹치는 것 역시 베트남의 대한 수입이 급등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해당 품목을 선정함

우리나라
대비
수출동향
(HS 2202)

- ▶ “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(HS 2202.10)”의 대비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“기타(색깔을 입히지 않은 것)(HS 2202.10-9000)”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

한국의 연도별 대비 수출동향(HS code 2202.1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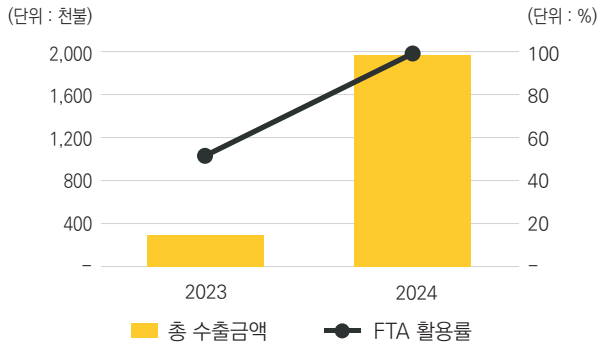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	
			2021	2022	2023	2024
		총계	430	718	1,811	1,925
1	2202101000	색깔을 입힌 것	178	190	628	139
2	2202109000	기타	252	528	1,183	1,786

수출금액
및 FTA
활용현황
(HS 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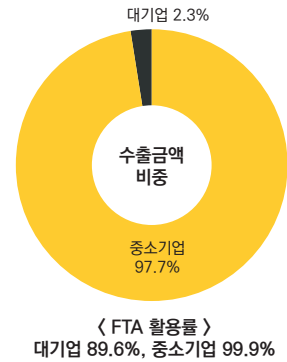
- ▶ HS 2202.10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)의 대비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(추후확인)
- FTA 활용률 '23년 1분기 기준 53.5%, '24년 1분기 기준 99.6%로 나타남
 -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베트남 FTA는 CTH or RVC 40%, 한-아세안 FTA는 RVC 40%, RCEP은 CC 임
- ▶ 24년 1분기 기준, HS 2202.10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2.3%, 중소기업 97.7%임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89.6%, 중소기업 99.9% 임

수출금액
및 FTA
활용현황
(HS 6)

HS 2202.10의 對베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
(2023~2024)



HS 2202.10의 기업규모별
수출금액 비중(2024.1분기)



베트남
수입
동향

- ▶ 22년 기준 베트남의 HS 2202.10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, 중국,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22년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태국(97.6%)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, 중국(1.2%), 말레이시아(0.6%), 캄보디아(0.4%), 한국(0.1%)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
 - * 22년 기준 우리나라는 5위 수입국임

특이
사항

- ▶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로, 도시화 및 생활 수준과 함께 소비자들의 식음료 소비 생활 패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
 - 식음료 중 탄산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,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,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,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접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수요 증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
- ▶ 특히 정수 시설이 부족한 베트남은 가정 식수 대신 천연 감미료나 향을 투입한 음료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
- ▶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식품 상품의 경우 베트남 식품 안전법관 관련 법령에 따라 「베트남 식품 라벨링 요건」을 준수해야 함
 - 식품 라벨링 요건에 대한 위반 행위가 탐지될 경우, 베트남 현지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·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식품 상품을 수출 할 경우 해당 요건의 준수(라벨링 위치, 크기, 형태, 표기 언어 등)가 필요함

〈베트남 식품 라벨링 요건 개요〉

- (개요)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링 일반 조항을 규정
- (적용대상)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, 단체 및 상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및 단체 모두 적용
- (제외사항)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식품(포장없는 연료, 농산물 원재료, 건축 재료, 스크랩 등)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은 한-베/한-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0%, RCEP 특혜관세율 24.5%, MFN은 35%로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- RCEP은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발효 10년차인 2030년도에 특혜관세율이 0%로 완전 철폐됨
- ▶ 선정품목의 경우 MFN 세율이 35%인 고세율의 품목으로 FTA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베트남 시장진출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
 - 더불어 베트남 소비자들의 취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